



이 만화의 내용은 허구입니다.



학교 폭력 여부가
대학 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 제정됐다.



이후로 학부모가
선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했으나,



그러거나 말거나
가해자의 미래가
달라지는 없었다.

고졸로 학업을
마무리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
졸업장은 따라하기엔,
억지로 꼴통 대학이라도
다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학폭 이력이 남으면
상위권 대학에는 입학이
원천적으로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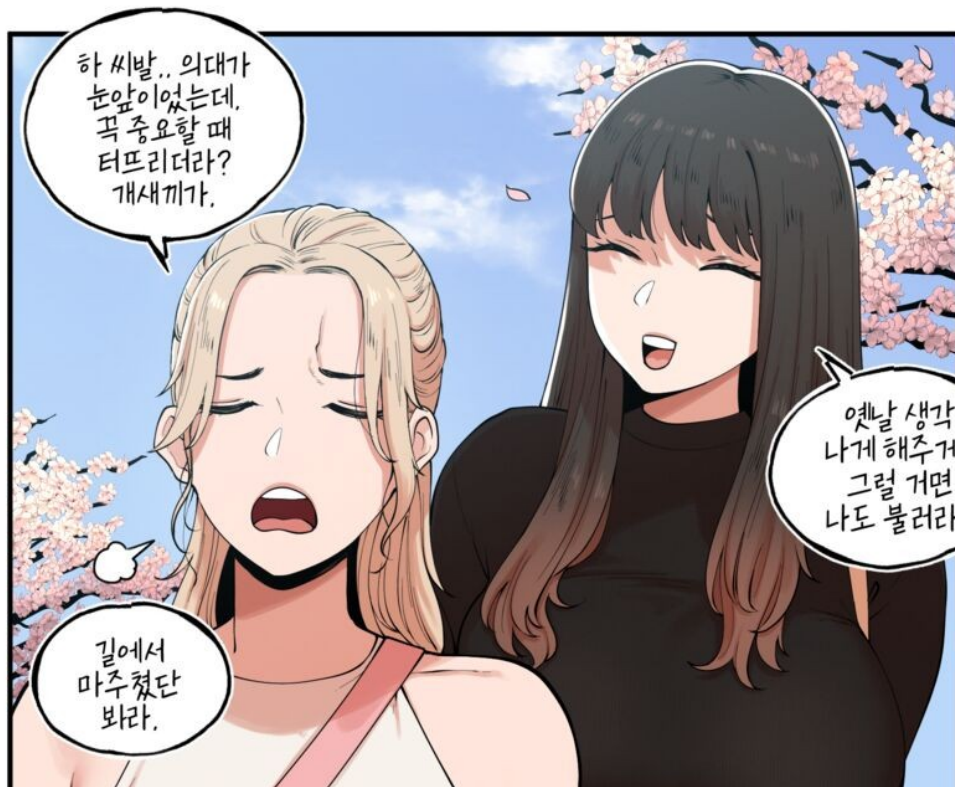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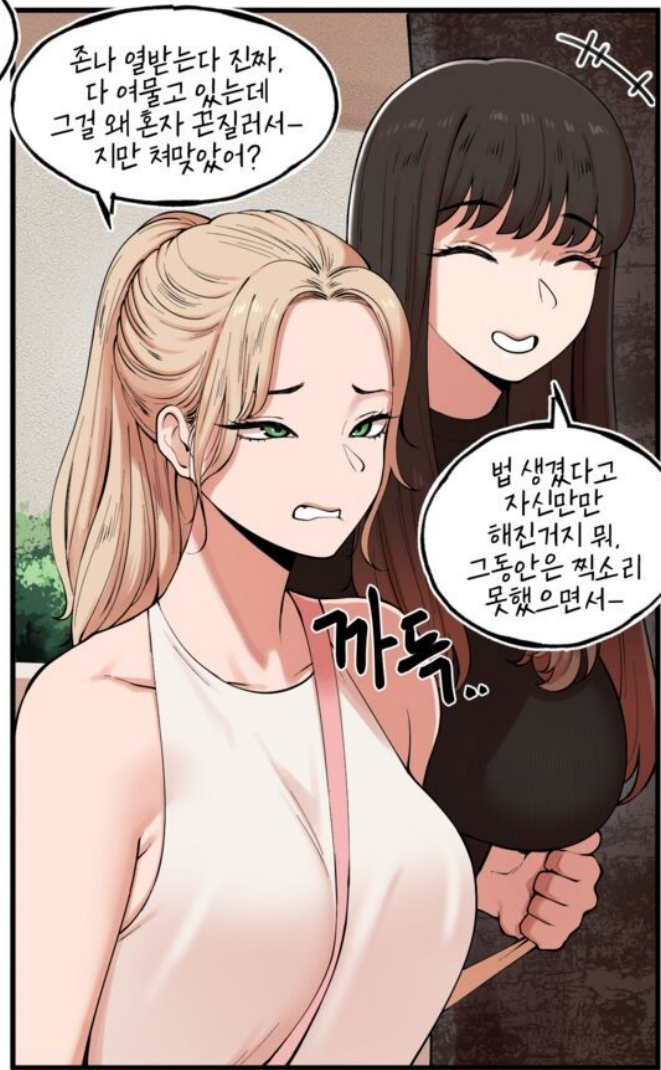
웬만한 대학은
입학 원서조차
올리기 힘들어진다.

법 시행으로
도마에 오른 이들은
뒤늦게 사과 및 용서를
구했으나, 합의는 없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밑바닥을 긁어 모은
학교가 좋게
돌아갈 리는 없는데..









어이 후배-
거기 술 안 마실 거면
여기 좀 갖다줘~



얼굴만
비추고 간다더니
뺨을 뽐네 아주~



왜 안 마시고
남기고 있어-
술 아깝게.

자, 왔으니까
한 잔만 하고 가.

아아, 네.
그럼 한 잔만..



후배님은 어쩌다
이런 데 왔어?
우리 학교 들어오기
뻥센데ㅋㅋ

난 턱걸이로
왔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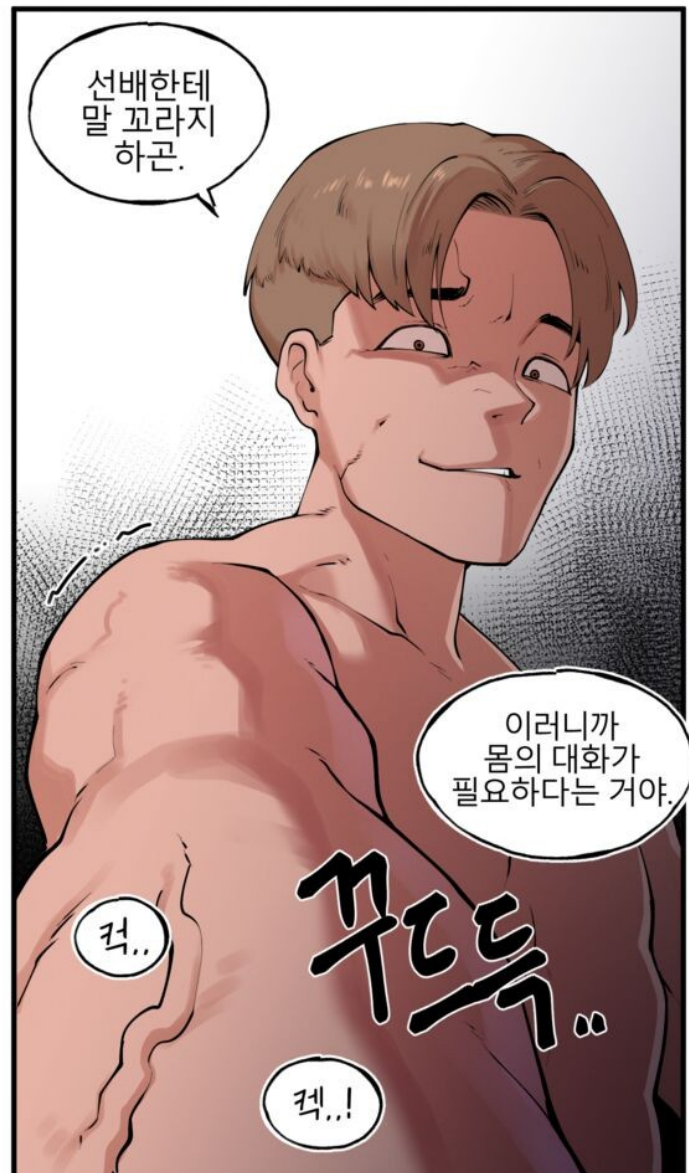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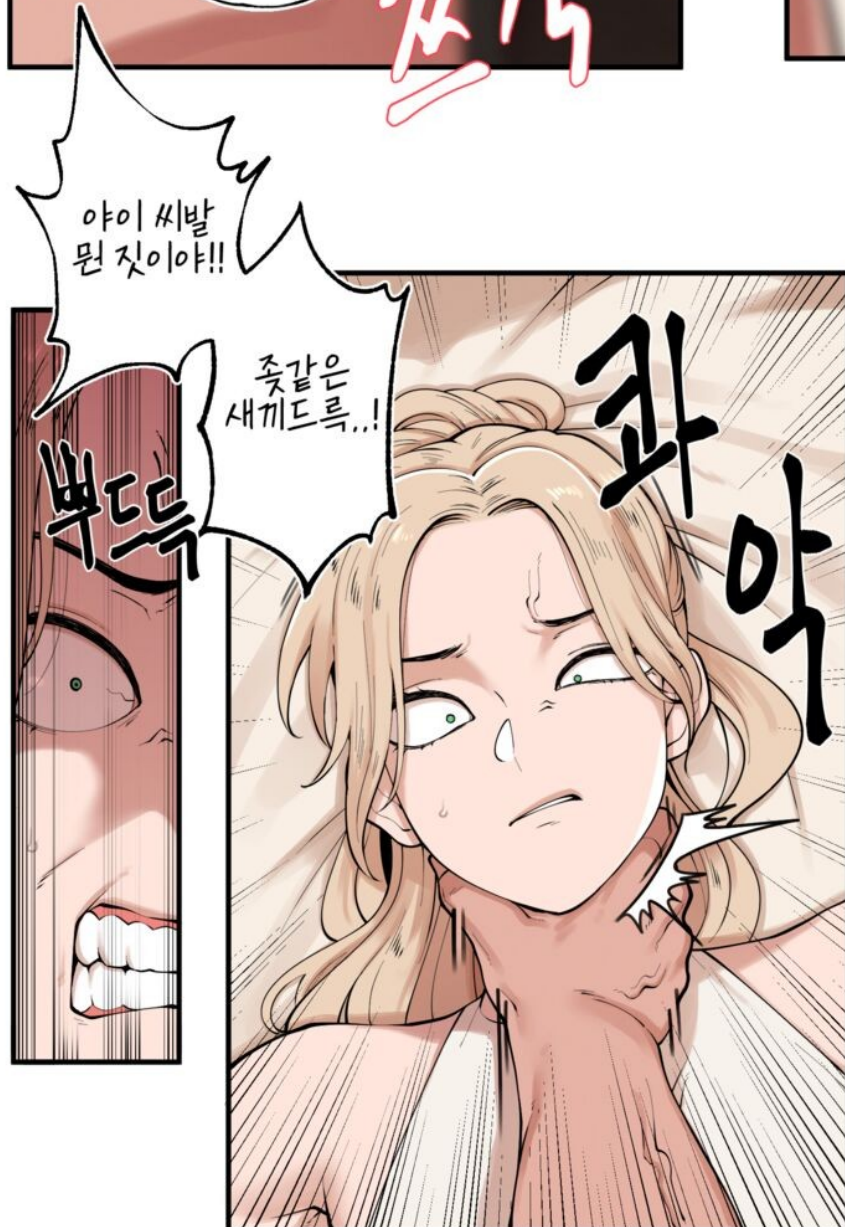
대학이라도
온 게 어디여.
뺨보단 낫지.

소문과는 다르게,
딱히 모난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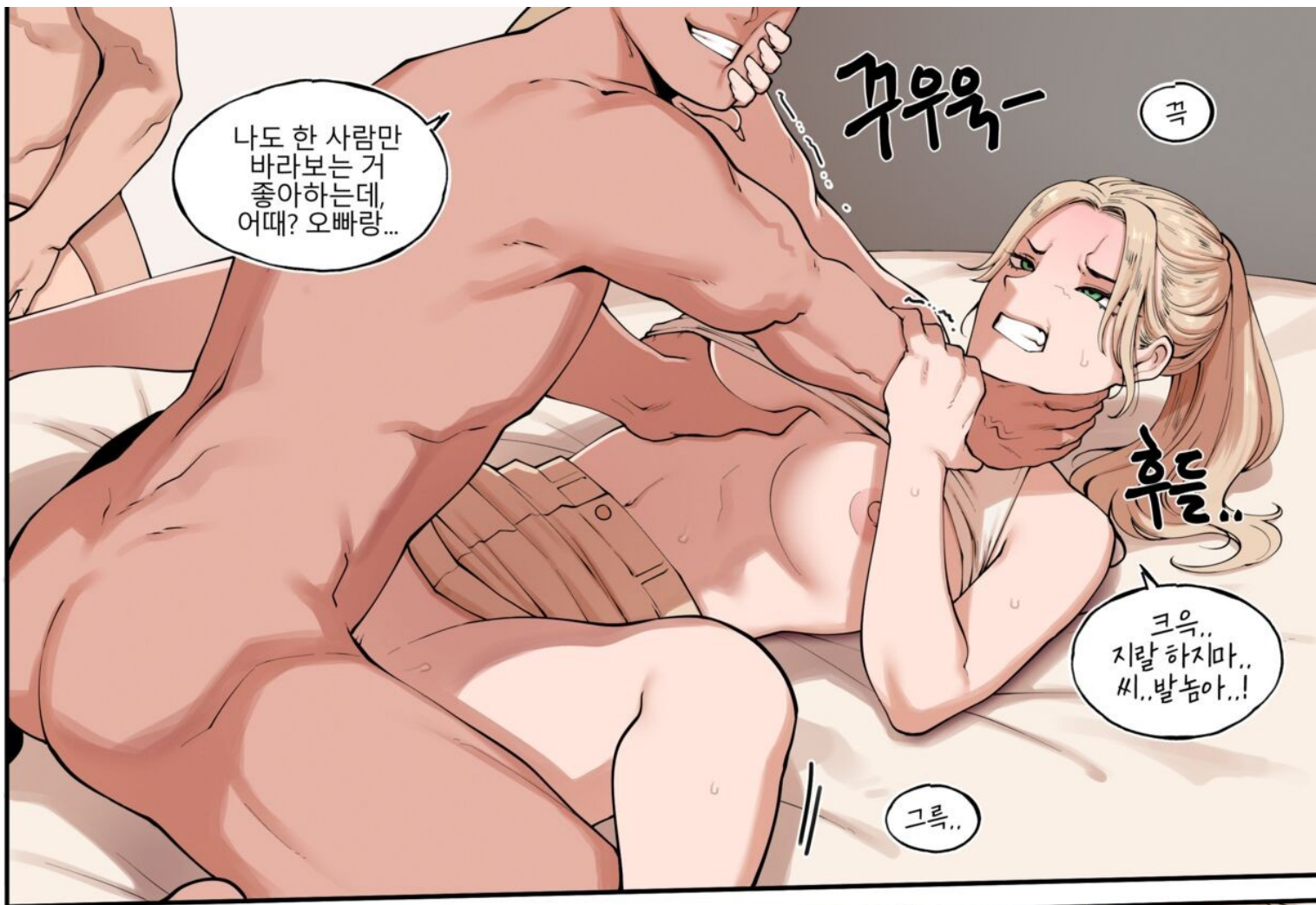
왠지 모를 동질감에,
경계심이 누그러진 게
실수였다.











나도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
좋아하는데,
어때? 오빠랑...

꾸우욱-

크

후들..

크윽..
지랄 하지만..
씨..발놈아..!

그럭..



조용히 좀 해라~
암만 지랄해도
너 도와줄 사람
없어-

하아

파악-

하아..

죽까
미친
새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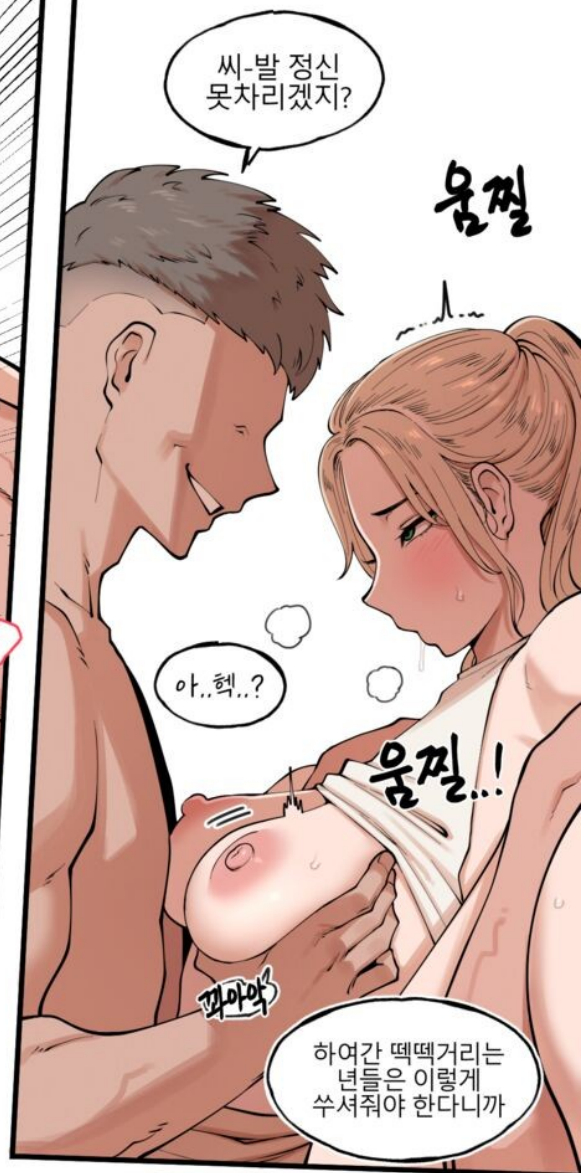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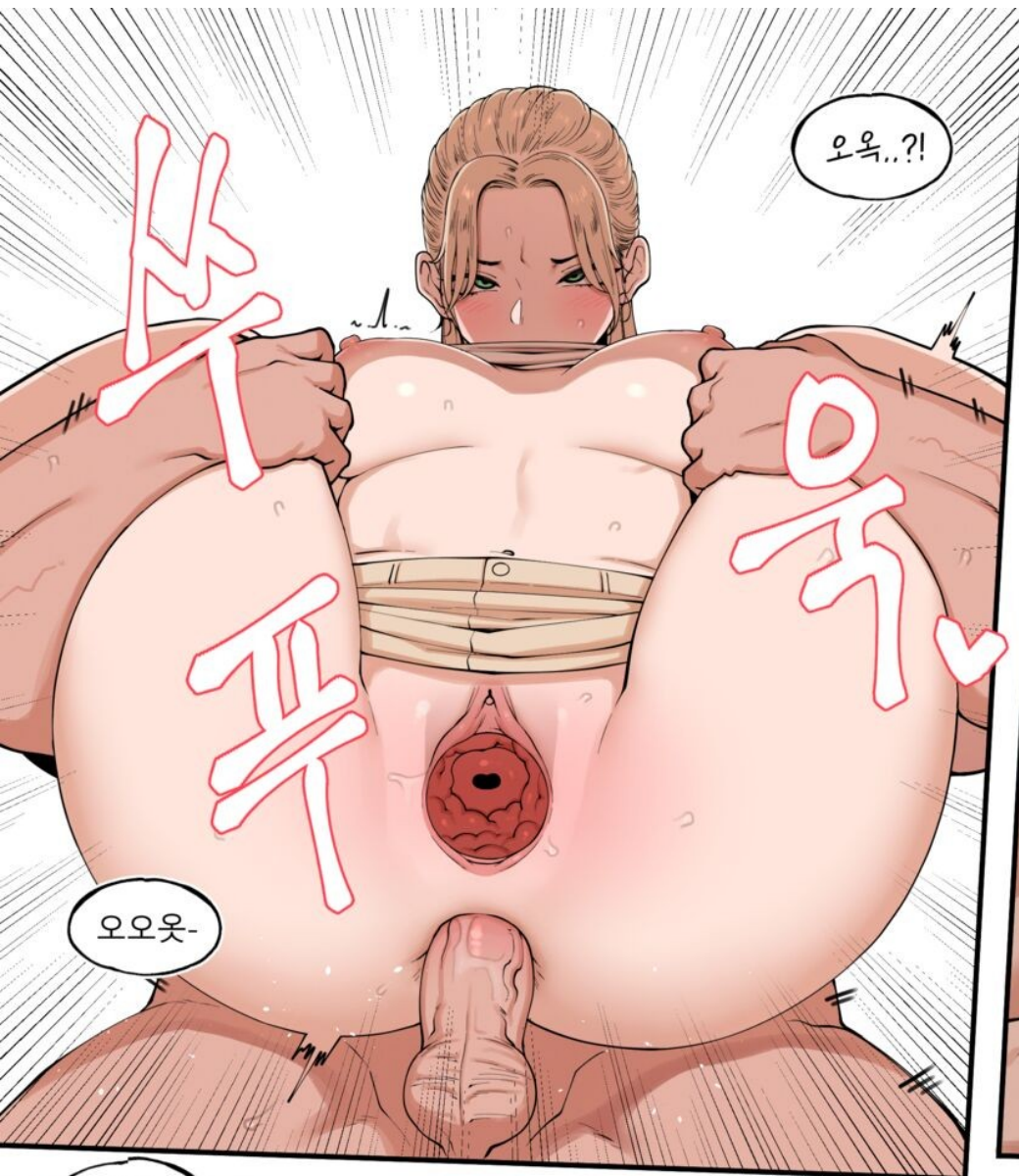
개같은
씹새끼!
죽일
거야..

죽일
거야아
-!!

아 거 참.
자꾸 그렇게
고성방가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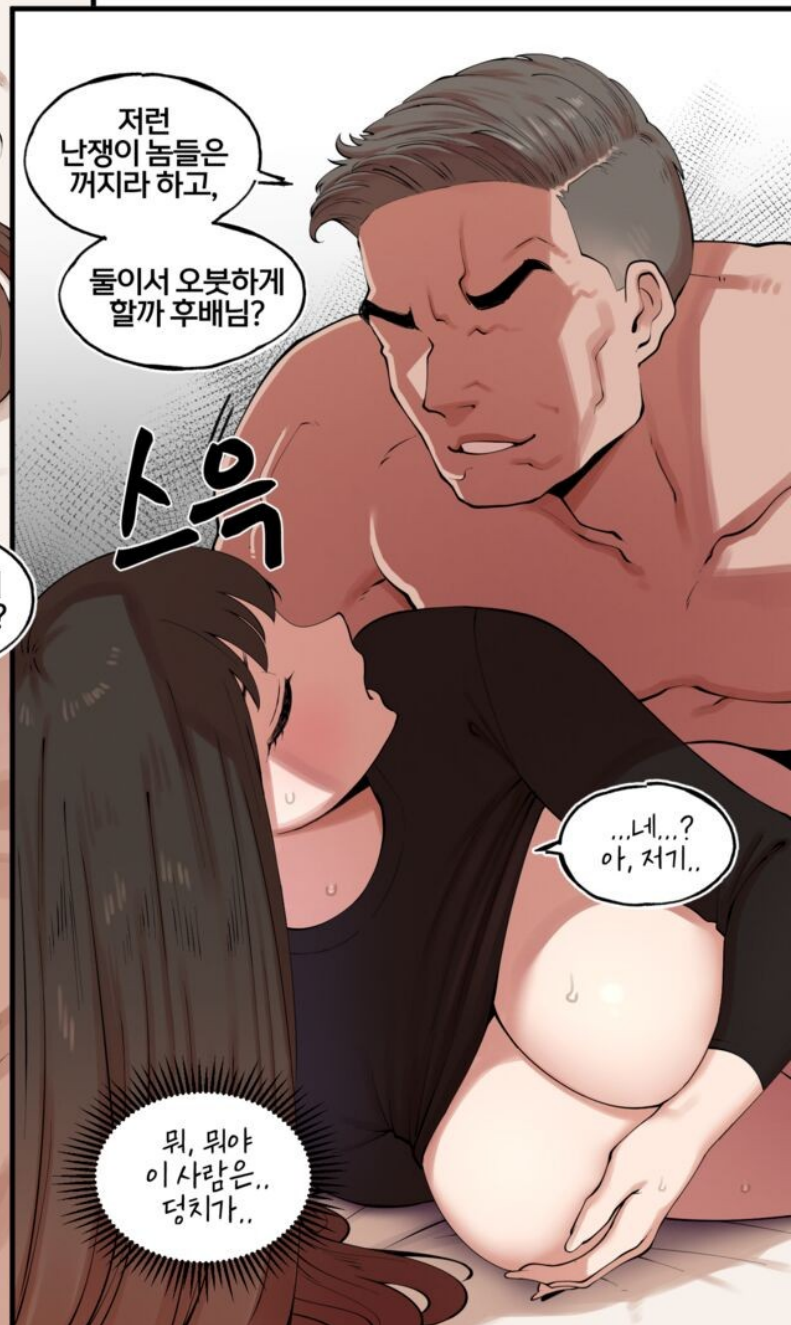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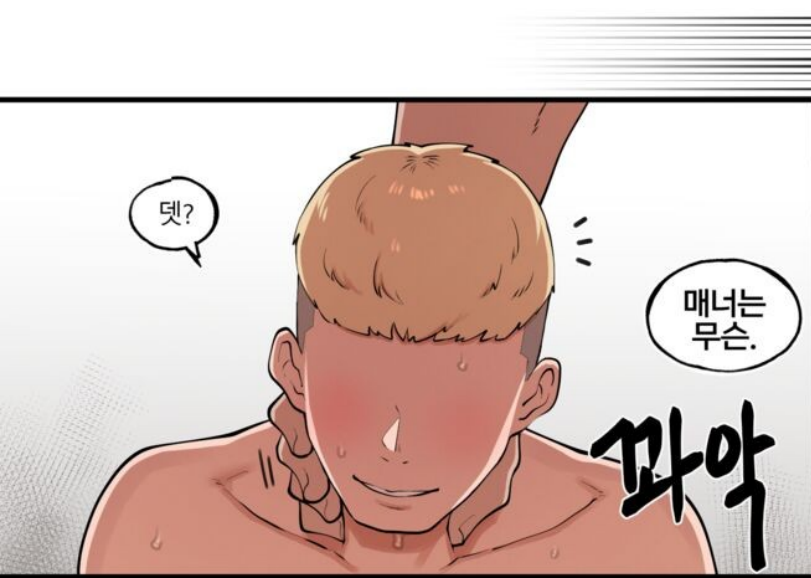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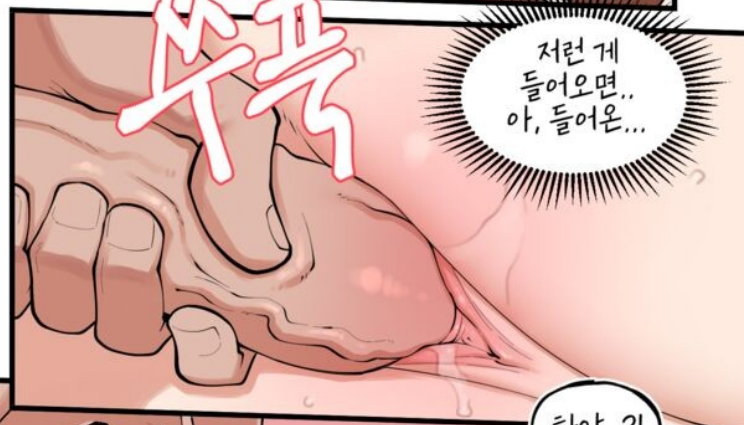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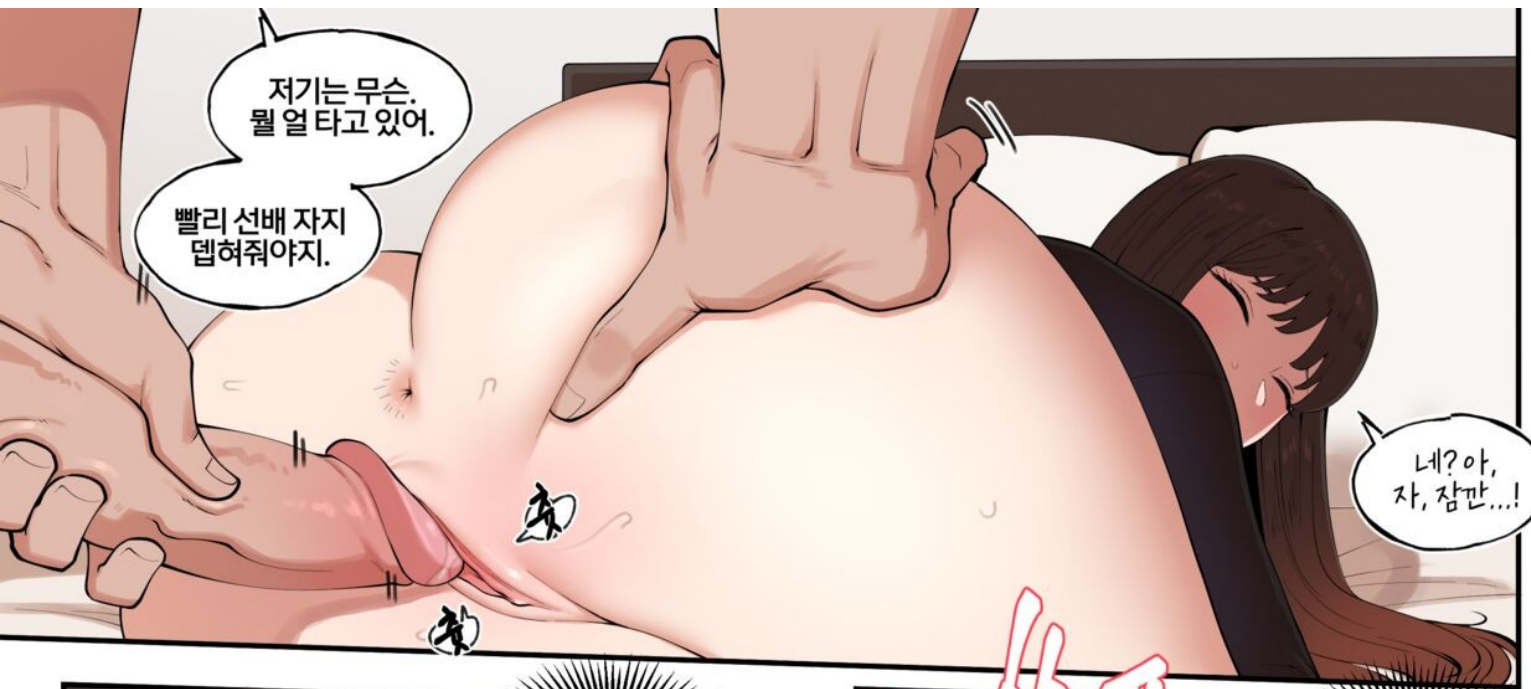














대단하네,
우리 후배님.
이 자지 넣으면
반은 졸도하던데.

하아..

말도 안 돼..

쭉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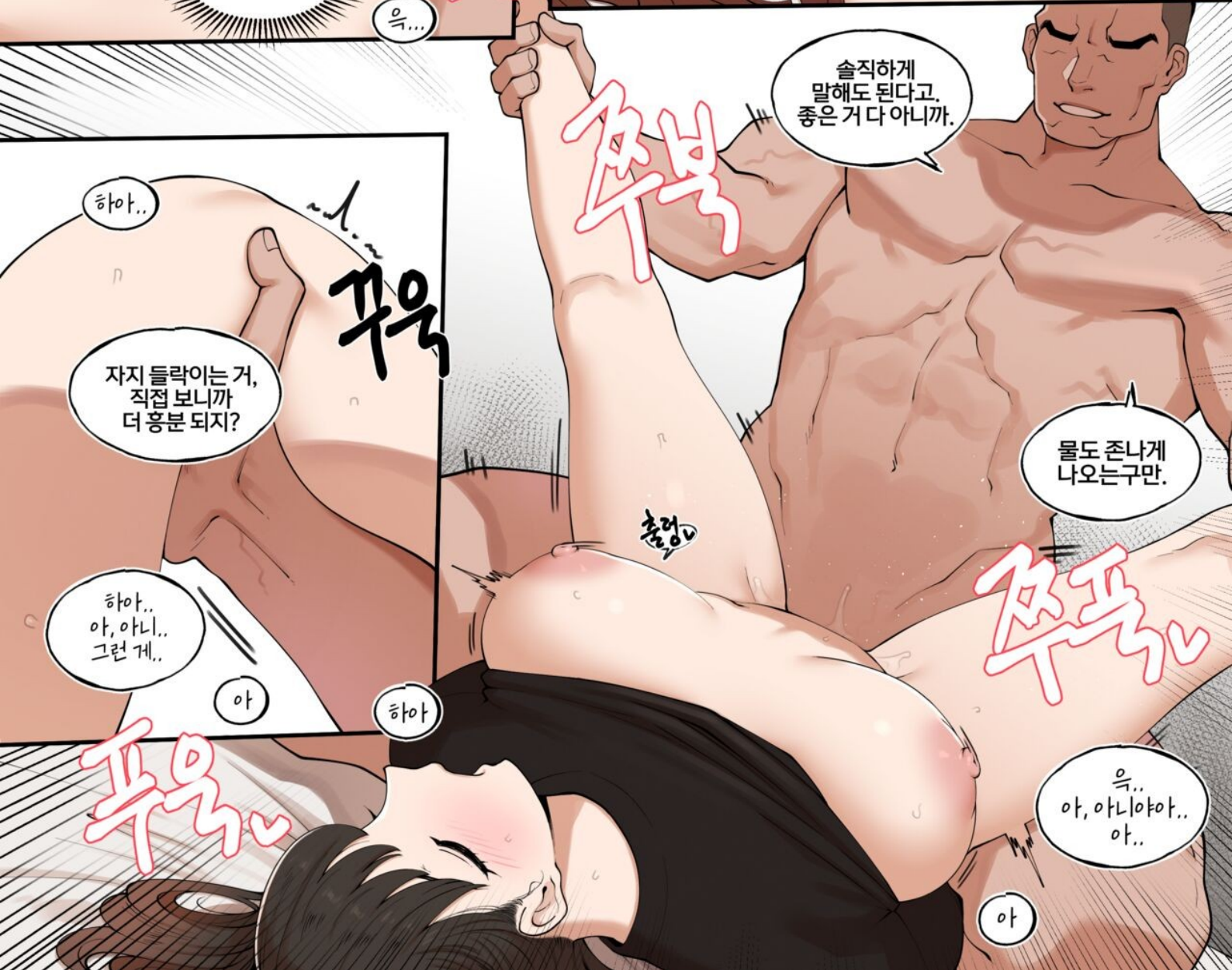


앞에 놈들이
잘 풀어놓은 건가?
저런 놈들도
슬모가 있긴 하네.

이 정도로
커다란 게 들어와서
아플 줄 알았는데...
어째서...

흠...

으...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좋은 거다 아니까.

물도 존나게
나오는구만.

하아..
자지 들락이는 거,
직접 보니까
더 흥분 되지?

하아..
아, 아니..
그런 게..

아

하아

으..
아, 아니야아..
아..

아



꾸욱

슬슬 스퍼트
가 볼까-

아..?



자아,
여기를 이렇게
꾸욱 누르면서-

뿌드득...

안 돼..
아까보다
더 깊게...

끝까지 비집고
들어와서.. 언 ♥

꾸욱~

응~?



선배를 기쁘게 해주는
기특한 후배님에게는
상을 줘야겠지-

아아.. 잠깐..
이, 이 자세는..

하아

파아악..

왜, 부끄러워?
곧 좋아질거야~

뭐, 뭐야 이거..
아까랑 같은...데
압박감이..

하아

